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
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시편
147편 1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62-3498 •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전미령 평신도 선교사 파송

아프리카대륙 남부 「보츠와나」로

전미령 평신도 선교사의 임지변경 파송에
배가 지난 10월 15일(주일) 오후 7시 본당에
서 있었다.

전 선교사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부에
위치한 「보츠와나」로 파송되는데 그곳 지역
학교의 양호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근처 주민들에게 선교하게 된다.

전 선교사는 제작년 「케냐」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풍토병으로 인해 치료차 귀국한
바 있으며,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아프리카 지역으로 파송받아 출발하게 된
것이다.

파송될 지역인 「보츠와나」는 8개 부족으
로 형성된 인구 82만으로 영어가 공용어이
며, 아열대성 기후를 이루나 내륙의 고원에
위치하므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기온
이 몹시 낮아져서 서리도 내리며, 밤낮의
기온차가 큰 특징이다.

전 선교사의 건강과 선교사역을 위해 온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후원이 요청된다.

11월 2~3일 휴원

충현제자훈련

충현제자훈련원은 제9차 교육일인 오는
11월 2~3일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도부흥회 관계로 휴원한다. 이에 따라
2~3일 날짜에 접수하신 직분자들은 다른
날로 변경 접수를 바라고, 또 제직과 신임
임직자중 지금까지 훈련에 참가치 못한
분들을 위하여 11월 23~24일 한번 더
기회가 있다.

충현 권사회 월례회

10월 29일 오후 3시30분 갈릴리움

충현권사회(회장/ 이옥녀권사)는 10월
월례회를 오는 10월 29일 오후 3시30분
갈릴리움에서 개최한다.

권사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 바란다.

안수집사 모임

10월 30일(월) 오후 7시 갈빈홀

본교회 안수집사 모임이 오는 30일(월)
오후 7시 갈빈홀에서 개최된다.
안수집사는 전원 참석을 바란다.

교역자·장로 기도회
교회와 나라 위해 특별기도

교역자·장로 연석 기도회가 지난 18일
오후 9시30분부터 충현기도원에서 있었다.

1백여명이 참석한 동기도회에서는 복음
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도대회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 그리고 충현 복지마을 및
세계훈련선교원 건립과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해 특별기도하는 한편,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다.

또 세계선교와 공산권선교(북한선교와
병행)를 위해서도 합심하여 기도했다.

동 교역자·장로 연석기도회는 매월
1회씩 충현 기도원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
고 있다.

위임목사 동정

▲이종윤 목사는 오늘 24일(화)~27일
(금)까지 홍콩선교교회에서부흥회를 인도차
출국하신다 이를 위하여 기도를 바란다.

신상수집사가

에바다부 위해 콤비기증

에바다부(부장/ 박인세장로) 교사인 신상
수집사가 에바다부 학생 수송을 위해 콤비
1대를 교회에 기증했다.

기증된 콤비는 주일에는 에바다부가 사용
하고, 평일에는 충현유치원에서 사용케
된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축호노방전도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 조직
위원회는 전진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10월
22일(주일) 오후 4시 바울, 디모데남전도회
회원들은 베다니홀에서 기도회를 가진후,
교회근처 지역에서 축호 및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또 한나, 에스더, 마리아 여전도회 회원들
도 오는 25일(수) 오후 1시 갈릴리움에서
기도회를 가진후 잠실 주공아파트 1, 2
단지에서 일제히 전도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전도회 각지회는 10명이상
책임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충현프리즘

☆ 밀알선교단 10주년 기념
의 밤

지체부자유자의 선교단체인
밀알선교단(이사장/ 이종윤목사)
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
7일(화) 본교회 본당에서 기념행
사를 가졌다.

약 2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
의 밤에서는 시와 찬양, 간증과
찬양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
께 헌신하려는 밀알회원들의 간절
한 소망들이 표현될 때마다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뭉클하게한 진술
한 기념잔치행사였다.

☆ 이번기회에 진짜로 전도
합시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
대회가 매일매일 호응도가 높아져
이번기회에는 진짜로 전도할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
동조직위원회의 기획과 참여 프로
그램에 출전수범 참여하여, 각교
구별로, 교회학교별로, 남·여전
도회별로, 그리고 교역자와 장로
와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많은양
찾기 운동 전개, 태신자 전도에

모두들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주일(15일) 오후 4시에는
안수집사부부 70여명이 잠실지역
에서 약 2시간동안 축호전도와
노방전도를 펼쳐 결신자 수십명을
얻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 낙엽이 떨어지고 있다

가을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질
서의 일환으로 나무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가을비와 가을바
람을 통해 낙엽이 떨어지고 있
다.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4계절을 생각해한다.
결실이 있어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인데, 앞만 무성하게 피었

다가 낙엽으로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우는 쓸모없는
것들이 될까 심히 두렵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찍어
불에 던지우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을 맴돌고 있다.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모든 행한 일들이 극명하
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제 우리의 홀으러진 믿음의
옷들이 날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
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낙엽지는 이 가을에 한번쯤 생각
하며 쫓고 넘어가자.

제 6 대 안수집사
제 34 대 피택권사 교육개강예배

'89.10.17 저녁 7:00



▲ 제6대 안수집사 및 제34대 피택 권사 교육을 위한 개강 예배가 지난 17일(화) 오후 7시 소석관 301호실에서 있었다.

카메라 초점



▲ 제2회 장애인자기자선바자회가 10월 20일(금)~21일(토) 본당 옆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교회학교 장년2부(40~49세)
성경공부에 모두 참석을

교회학교 장년2부(부장: 윤인현장로)는
매주일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소석관 314호실에서 성경공부 집회를 갖는
다.

만40세부터 49세까지의 성도들은 장년
2부에 꼭 참석토록 바라고 있으며, 현재
지도교역자는 박형용목사(협동목사·합동
신학교교수)이다.

충현복지마을
세계선교훈련원
건립기금

▲ 89년 10월 20일 접수분

- ▲ 전부덕(2교구 양재구역)
- ▲ 최진성(1교구 교적번호 84-1239)
- ▲ 윤정(교적번호 86-222)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일예배 성경강해 시리즈 16



본문 / 요 6:37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지만 35-3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날마다 새힘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고로 계속 반복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넓게 열어놓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하늘 문으로 다 들어오게 하신다고 하는, 영원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이와 같은 약속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주님께 올 자

(1) 선택 받은 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주신 자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자라는 말은 아버지가 택하신 자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아들 하나님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주신바 된 그 생명들은 '나는 하나님이 택하고 예수님께서 준비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무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생명인지 아닌지를 아는 비결은 한가지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다"

없는데 곧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낼 수 있지만 믿음은 우리가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셨습니다'는 사실을 2천 년에 지난 이 파당에 믿는다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유해도 믿음이 없는 자는 길가에 파도가 다니는 강아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인류에 어떠한 공헌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하면 그는 가장 불행한 가장 보잘 것 없는 가장 비천한 인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 십자가 사건, 부활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예수님 자신을 믿게 될 때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를 닦고 우리의 삶이 건설될 때에 그런 사람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소경놀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은 지식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것도 다 믿으면 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요소에는 지식이 반드시 결여되어서는 안됩니다.

믿음은 또한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리

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지경을 보면 세상 전부가 보이지 않고 누르는 대로 이것이 나왔다가 저것이 나왔다가 합니다. 요지경을 보는 사람을 그 속에 있는 필름 밖에는 못 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본 것처럼 말씀을 듣고 쳐다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이 보여야 되고 지옥이 보여야 됩니다. 눈을 바로 뜰 줄 알아야 합니다.

② 믿음은 손입니다.

야곱이 압락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줄때까지 못합니다. 하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면 야곱은 죽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은 붙잡는 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놓치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소홀히 알고 엉뚱하게 제 욕심 따라서 다른 것만 붙들고 한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손들고 나아가 '하나님 해 주세요' 몸부림치는 것 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걸어갑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올 수도 없고 오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초청하지도 않습니다.

2. 주님께 오는 방법

(1) 즉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주님이 내려 오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 내려 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를 집다가

고기 잡다가 "그것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즉시 따랐습니다. 순종할 바에는 즉시 해야 합니다. 끝까지 안하면 지옥갈 것이고 순종하는데 머뭇거리면 매만 실컷 맛고 마지막에 끌려오는 비극을 초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야곱고도 뒤돌아보지 않고 억울하다고 그것 생각지 않습니다. 즉시 행했습니다. 계산해 보고 안되면 가겠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가난한 심정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천국을 정말 소유하고 싶으면 마음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말은 거지되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거지는 어디까지 교만할 수 없고 어디까지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느껴야 합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위대해지는가 하면 자기가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나는 가장 위대합니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가분, 머리, 건강, 젊음, 가진 것을 때들어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비참한 상태를 정확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47억 인구 중에서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정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 믿음

'믿고 오라' 방법은 믿고 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깨지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회 있을 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아갑시다. 자기 자신과 비참함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 즉시 출발합시다. 하나님은 만지, 하시고 내어 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어 쫓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옵니다. 믿음은 그라스도에게 오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온 자는 그에게 의지하게 합니다. 그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 처럼 절대 의존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약속

속에서만 뱅뱅 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확실한 것, 분명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조종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실제적인 꿈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비현실적이고 천국가는 것만이라고 하나 그것도 잘못입니다. 믿음은 계시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주 실재적입니다.

진리를 깊이 파고 진리를 정말 만난 사람

는 잠을 깰 줄 아는 손을 가져야 합니다. 가질 것을 가져야지 다른 것을 자꾸 달라면 안됩니다.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허상을 보고 따라 가지 말아야 합니다. 허상이 진짜인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다 빼앗기면 큰 일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③ 믿음은 먹는 입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먹지 않고 붙잡고만 있어서는 힘이 빠집니다.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인격을 삼키고 신앙이 날마다 살찌어 됩니다.

(2)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안 쫓으십니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찾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전짜 죄인은 죄인이라는 말을 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만 아니라 참으로 죄인입니다.

(3) 자기 무능을 인정한 자

너무 젊어 무겁습니다. 인생은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무능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만 찾아가 됩니다.

들은 그렇게 겸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현실적이지 우리가 볼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①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놓고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뱀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는 살아났고 뱀을 바라보지 아니한 눈을 가진 자는 죽었습니다. 믿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전리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눈에 없는 사람은 소경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싶고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볼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라고 해도 보여지지 않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논에 보이는 것만 귀한 줄 아니 고집을 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과 믿음의 눈이 아닌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전혀 달리 보입니다. 우리 말에 요지경

피택 안수집사 · 권사 교육 개강

앞으로 6개월간 교육, 90년 3월 13일 종강

교회는 피택 안수집사 · 권사 교육을 위한 개강 예배를 지난 17일(화) 오후 7시 소석관 301호실에서 드렸다.

피택안수집사 부부 40명, 피택권사 40명 등 80명이 참석한 이날 개강예배는 윤용규목사 사회로 진행되었다.

찬송 246장을 다같이 부른후 이웅선장로의 기도가 있었으며, 성경 사도행전 21장 16절을 봉독한 뒤 이종윤위임목사가 「오랜 제자 나손」이란 제목의 설교를 했다.

동 교육은 앞으로 6개월간 계속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후 고시를 거쳐 안수식 및 취임식을 내년 4월경 가질 예정이다.

안수집사 및 권사교육 계획은 다음과 같다.

▲ 교육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섬김의 자세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있다.

▲ 교육목표

- (1) 신앙의 모범이 되는 집사
- (2) 생활의 모범이 되는 집사
- (3) 섬김의 모범이 되는 집사

▲ 교육대상: 피택 안수집사 20명

▲ 교육장소: 소석관 301호

▲ 교육기관:

1989. 10. 17~1990. 3. 13(19주)

매주 화요일 오후 7:00~9:00

▲ 주제성구 및 찬송

- (1) 주제성구: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3)
- (2) 주제찬송: 날 대속하신 예수께(351)

▲ 교육주관부서: 성경연구원(당회의 위촉 받음)

▲ 운영지침

- (1) 소정의 교육을 마친후 평가
- (2) 평가방법:

출석-40점
필답고사-30점(성경, 소요리문답, 교회정치, 예배모범, 면접)
보고서 제출-20점
면접-10점 계 100점
(평점 60점 이상이면 합격)
강의과목 및 강사

- ▲ 개강예배(이종윤) ▲ 교육안내(이조웅) ▲ 안수집사의 위치와 사명(윤용규) ▲ 집사의 건강생활(김동열) ▲ 철야기도회(김익경) ▲ 신앙과 사회생활(이진태) ▲ 청

- 지기론(1)(박영희) ▲ 청지기론(2)(박영희) ▲ 장로교회 원리와 신조(1)(김영구) ▲ 장로교회 원리와 신조(2)(김영구) ▲ 장로교회 원리와 신조(3)(김영구) ▲ 예배모범(정규남) ▲ 교회론(1)(김해규) ▲ 교회론(2)(김해규) ▲ 집사의 가정생활(윤영탁) ▲ 영적성장의 필요성(1)(송태근) ▲ 영적성장의 필요성(2)(송태근) ▲ 집사직과 재정관리(김영개) ▲ 철야기도회(김광석) ▲ 종강예배(이종윤) ▲ 고시(필답, 면접)(당회)

제34대 피택권사 교육계획

- ▲ 개강예배(이종윤목사) ▲ 교육안내(이조웅강도사) ▲ 교회와 권사의 위치(윤용규목사) ▲ 철야기도회(김동열목사) ▲ 하나님의 청지기(김광석목사) ▲ 장로교회 원리와 신조(1)(이조웅강도사) ▲ 장로교회 원리와 신조(2)(이조웅강도사) ▲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김영구목사) ▲ 구역에서의 권사의 역할(구명신전도사) ▲ 구원의 확신과 성숙(김익경목사) ▲ 권사의 신앙생활(김주아전도사) ▲ 철야기도회(김학진목사) ▲ 종강예배(이종윤목사) ▲ 고시(성경 및 면접)(당회)

지난 10월 2일 세계 선교원 건축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러 마리의 산새와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합창하였다.

당일 아침 본교회 당회원들이 부부동반하여 총 99명이 위임목사님을 모시고 충현교회 세계선교원 건립장소인 경기도 가평으로 출발하였다. 가평읍을 지나 청평댐을 건너 호수가를 따라 자동차로 약 10분쯤 들어가면 동향으로 앉은 한 아름다운 산이 나타난다.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부리 370-2. 임야와 대지를 합하여 19,461평으로 과히 높지 않은 산이다. 1980년 7월 29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매입토록 허락하시고 이제 미리 준비된 이곳에 세계선교원을 건립토록 섭리하신 것이다.

오전 10시쯤 도착하여 약 7분쯤 산을 올라 우거진 숲속에 자리하여 앉고 사방을 둘러보니 절로 마음이 흐뭇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금할 길 없었다. 김 은호 장로님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김 기정 장로님이 감사기도를 올린 후 위임목사님의 설교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봉독에 이어졌다.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니라하는 말씀에 기초하여 온 성도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원 건축을 위해 정성과 힘을 다하여야겠다는 말씀과 앞으로 이 선교원을 통하여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성극경연대회에서 여자 연기상을 받은 유인애양(19세)은 태양금속 주식회사 연구실에서 자료정리를 도맡아 하는 애타는 직장인.

모태신앙으로 믿은 가운데서 성장한 유인애양은 입상소감에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흥분된 어조로 대답한다. 학창시절(성덕여상중)엔 연극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는데,

모두가 전도인

※ 다음 글은 교회학교 소년부 교사 이요섭 선생님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에 소년부 학생들도 모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본보에 투고한 글이다. 수정없이 그대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우리의 사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하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18)."

믿는 사람은 자기 행동으로 자기가 믿는바를 보일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 우리생활을 통해서 남들이 알 수 있습니다.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한 전진대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학교 어린학생들로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번 기회에 전도 합시다"라는 인사 말씀을 나누면서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태신자를 인도해 와서 기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교회학교 소년부 교사 사무실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주일 오후 늦게까지 부장, 부감께서 교사들과 함께 전체 학생출석부를 꺼내 놓고 장기결석생(8주 이상 무단 결석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결석회수를 뽑아 특별 심방 대상자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심방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소년부의 모든 교사와 학생들은 전도와 심방을 겸하여 실시하여 그리스도로 부터 받은 사랑을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하여 좋은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소년부에서는 지난5, 6월에 걸쳐 실시한 초창전도 기간 동안 80명이 넘는 새친구를 전도하여 등반시킨바 있는데 그때에는 교사님들께서 반 친구들과 학교근처 음식점이나 어린이 대공원 또는 교사님들 나름대로의 장소에 태신자를 나오게 하여 따스한 사랑으로 대접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만들어 그들을 결신하게 하였답니다.

6학년 김민 어린이는 두차례에 걸쳐 13명을 전도하여 지금까지 잘나오게 하고 있어요.

성도님의 가정에 국민학교에 다니는 자녀로써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가 있으면 직접 데리고 오시든지 연락주시면 좋은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562-4181 교회학교 소년부 사무실

말씀이 계셨다.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시원한 한줄기 바람이 스쳐가면서 어디서부터인지 강한 솔잎 냄새와 향내를 실어왔다. 그 시원

장로칼럼

세계선교훈련원 건축 위한 첫예배

윤종성(장로 · 전도위원장)

함과 그 향기에 말할 수 없는 상쾌함을 느끼며 몇번이고 큰 호흡을 하는데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산에 오르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위한 십계명을 내려 주셨던 일과 또 예수님께서 세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시어 그 모습이 변화되시니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던 일이 떠올랐다. 이 산이 바로 시내산이 되고 또 변화산이 되었으면 하는 간구가 마음에 일었다.

설교가 마치고 주신 말씀을 새기며 통성기도를 드리고나자 사회자 장로님이 내게 대표기도를 하도록 지명하신다. 설교시간중 내 마음에 주신 간구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로서 준비시켜 주신 것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세계선교원이 완공되고 이 산에 오르는 자마다 옛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던 일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받아 가감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인간이 되고 또 성숙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였다. 또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산에 오르는 성도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선교원을 사모하는 심정을 갖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끝으로 이 공사 설계, 시공, 건축위원들을 위한 간구로 기도를 마쳤다.

그리고 다 함께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찬송을 부르는 데 갑자기 지금까지 조용하던 나무위에서 여러마리 산새들이 경쟁하듯 지저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저마다 갖가지 소리로 요란하게 노래하니 예배하는 우리들과 함께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듯 하였다. 신기한 것은 찬송후 목사님 축도하실 순서가 되자 산새들의 노래가 일제히 멈추고 더욱이 오직 한마리새가 가는 소리를 두번 내더니 곧 그도 조용해진 것이었다.

모든 일이 매우 신기하여 귀로에 여러분들에게 새소리를 들었는지 물으니 별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자연과 산새들을 통해 내가 그 산위에 머물렀던 시간을 각별한 경험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날의 광경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루에도 몇번 순간순간 눈앞에 다시 펼쳐지곤하는 것이다.

다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의 단순한 생각과 쑥스럽음이 없어지고 잘해야겠다는 충동감이 앞섰다고.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면 또 성극을 계속하고 싶다는 유인애양은 현재 대학부 회원이면서 제2부 찬양대(임마누엘) 엘토파트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주 귀여운 시골아줌마(?)

얼굴

제1회 성극 경연대회에서 여자 연기상 받은



유인애양

극예술선교단 선배의 권유에 못이겨 처음 연극경연대회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연기상을 받고보니 그저 기쁘기 한량없다고 속마음을 털어 놓는다.

본교회 유희재, 최정순집사의 장녀인 인애양은 약1개월 반동안 연극연습을 하면서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다면서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번 공연된 작품 자체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 본인 자신이 소외된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까에 대한 분명한 대답도 찾았다고.

연습 중 모두들 바빠서 모이기가 힘들었고, 그러나 일단 모이면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최선을

시무권사 단기교육

24일 오후7시, 25일 오후1시 중 택일
교회는 시무권사 단기교육을 오는 24일, 25일 갈릴리홀에서 실시한다. 해당되는 시무권사들은 24일 오후7시 또는 25일 오후1시 중 택일하여 교육을 빠짐없이 받아야 한다.

각 대수 및 임명년도 권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 14대(1970년)

이영주

▲ 17대(1973년)

김정임 안윤진 정봉조

▲ 18대(1974년)

김은애 지영실

▲ 19대(1975년)

김두성 김영옥 감광원 박선자 박희범 이덕순 이순근 이순녀 이옥녀 정양순

▲ 20대(1976년)

김순애 노영숙 백숙실 서 옥 송형실 신군자 유경수 유정희 정원향 최순자

▲ 21대(1977년)

김순애 김신도 김애순 김영희 문봉숙 송귀남 안인현 이신일 이희원 임화순 전순자 최정순 함송현

▲ 22대(1978년)

고희주 김경희 감봉선 김상순 김순실 심성례 김효정 문정숙 박석순 박순옥 박옥식 박금순 석옥순 성복순 실 숙 오희명 원도화 유준홍 유순녀 윤순임 윤영애 윤희순 이대실 이명지 이문순 아문자 이봉남 이봉재 이예강 이희복 이점순 이정진 이경옥 이희수 임순철 장기옥 정삼은 조계진 조말예 지숙원 최홍신 형수일

▲ 23대(1979년)

고정일 김경숙 김매리 김명준 김복남 김복녀 김복희 김순복 김조영 노승녀 노희춘 민순애 박순봉 변순복 순명순 인유향 양정숙 여옥자 이마리아 이정자 이현순

한병희 여수범 최춘란 한정숙

▲ 24대(1980년)

강유정 공향조 김 순 김동우 김동호 김명숙 김병숙 김순현 김옥대 감복선 김용실 김정남 김중복 박분규 방계윤 백병희 신정순 안묘집 양창용 오재춘 이보형 이영숙 장기옥 정성춘 장우정 전인화 정순주 조병숙 최경복 최경애 최단수 최영호 최혜영

▲ 25대(1981년)

박선부 구정례 김명실 김반월 김선주 김성숙 김성애 김숙자 김순애 김순이 김성숙 김영자 김홍순 김은금 김정희 김진남 김화자 남일호 노순경 노인덕 문선옥 박우순 박은숙 박용녀 박경서 서상옥 손보석 신명희 신경희 안순자 안정엽 양숙만 오미희 오동녀 오순환 원형선 유만녀 유정일 이귀옥 이만숙 이순녀 이옥현 이용철 이정숙 이정희 이종훈 임선부 임순실 장순자 전칠금 전혜선 조귀남 조기형 진희순 최금성 최병순 최봉숙 최정숙 한경옥 한봉숙 허인숙

▲ 26대(1982년)

계순옥 고남근 권영자 김귀녀 김송자 김유순 김정화 김후진 나윤전 남규유원 라봉도 민은혜 박영순 백봉희 백순희 백희주 서양순 송병희 신금녀 안옥실 우중아 유옥녀 이성덕 이춘일 정사영 장영옥 정승화 조동숙 조맹녀 조인순 최복순 함기복 한순명 한순원

▲ 27대(1983년)

강숙명 강홍옥 김남진 김영옥 김대건 김태숙 김태정 박도홍 박영숙 박인옥 백도홍 백인숙 서석일 신우숙 안소현 윤여진 이귀복 이연희 이영남 이연경 이흥선 전일향 조종원 한영숙 황규선

▲ 28대(1984년)

강경환 강봉옥 이춘희 이옥분 이인자 천명옥 김경자 정양래 정연화 조 숙 최연화 최희상 한금희 황성례

▲ 29대(1985년)

장보길 강상선 고금자 고임성 권순애 김 순 김복임 김석운 김순동 김화순 김우연 노 반 박복실 박경원 서영자 성학기 신일순 안춘진 안태래 윤상규 이도영 이숙화 인순자 이숙자 이인로 이종숙 이후덕 임옥순 장성래 전계화 정명실 정우남 정재용 조대화 조덕순 조부래 조봉환 최 순 최경상 최봉순 최화순 한정석 한복희 한계식 홍유순

▲ 30대(1986년)

권인숙 김관옥 김근실 김길득 김복순 김성애 김옥순 김의덕 김충업 김춘자 김희옥 남정우 박길순 박병연 박영규 박영자 박인애 박종민 박종연 박태순 신순덕 심영순 안금옥 안분동 염미숙 오채연 유기영 유병옥 윤수원 이금옥 이명옥 이지영 이순미 심선미 장정순 장애희 장현숙 장희자 전영희 정정혜 정정숙 전순자 정태환 조승희 조옥순 주옥환 채태선 최승복 하광숙 한금옥 허경연

▲ 31대(1987년)

강순남 권영애 권윤행 김근순 김선희 김연균 김용실 김춘자 김춘희 김혜옥 나영희 나종순 나태순 남은주 문옥순 박영업 박민애 박순자 사일선 서옥계 신명순 양숙자 우순성 유금영 유미자 윤정희 이금순 이병숙 이봉순 이순래 이승희 이영자 이윤영 이인숙 이홍순 임근애 정부덕 정순자 정주환 조경옥 조미경 조복덕 권구남 안순실 홍화범

▲ 32대(1988년)

고인규 김경순 김계순 김기순 김동원 김분려 김순애 김심영 김연수 김옥순 김옥순 김옥희 김은순 김은주 김인숙 김정연 김정은 김경자 김중자 김중희 박갑래 박경옥 박영업 박영일 반정현 백경옥 신갑범 신정숙 심귀래 심귀선 양승희 이주덕 유호영 유후자 유광선 이규숙 이복덕 이복을 이성권 이순집 이순현 이옥기 이옥남 이인자 이창자 이춘실 이미숙 전순임 정순애 정태순 최은혜 최재호 한정실 현숙희

▲ 33대(1989년)

강용순 국경애 김갑순 김군자 김동태 김선화 김순애 김애경 김연정 김옥희 김정자 김중숙 김진원 김필녀 김혜숙 문순순 박두희 박말수 박명선 박정원 박정자 박혜정 배상남 백신경 서인희 송영강 양영숙 양광희 여정옥 염숙현 열종순 우점옥 원길자 유금수 유금순 유명애 유복달 윤성숙 윤순호 윤원노 이광일 이금자 이남순 이민화 이인순 이영순 이옥순 이원숙 이외순 이인숙 이동복 장만실 장요성 전신덕 정 옥 정순정 정태옥 조성금 조성남 조순자 조춘실 조태남 조희순 지지순 최미정 최경자 필영숙 한정순 홍영희 홍혜숙

제1교구 일꾼 신앙 세미나

교구 일꾼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총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복음전도의 최전방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구가 640여 세대, 1,400여 명의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는 전진대회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서는 이 취지에 발 맞추어 일꾼 여러분을 위한 신앙 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가 일꾼 자신들의 발전과 구역의 성장 그리고 교구 전체 단합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풍성한 수확을 거둡시다.

때: '89. 10. 27(금) 저녁 7:00

곳: 만나홀

제1교구 담당교역자 목사 김해규

교구장 장로 오정현

디모데 남전도회회장 최중시

원고모집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모든 내용을 투고해 주시면 정성으로 편집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주간총련 편집국

구역예배를 위한

충헌다락방

1989년 10월 27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43과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성경: 요 1:40-51

요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 1:45)

찬송: 258, 263장

만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어떤 방도가 좋은가? 특별한 계획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것도 좋겠으나 보다 확실히 열매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몇 사람을 정해놓고 집중공략을 하는 것이다. 전도대상자로 정해놓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그의 우정을 얻고자 힘쓰라

우정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그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같은 신뢰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롭고 진실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좋은 친구 관계가 형성되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면서 겸허한 회생과 양보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사에 초대하여 그의 관심사를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은 전도하기 위한 알파한 위장전술로 끝나서는 안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의 유익을 위하여 그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기에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아니하시면 전도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요 6:44). 우리가 계획 세우고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한

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도 없다. 전도할 사람 목록을 작성하여(태신자카드) 그를 위하여 꾸준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3. 그 앞에서 진실한 신자의 삶을 살라

행여나 전도하는 우리 말과 우리 행실이 일치하지 못하거나, 복음 진리와 우리 생활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의 인격과 생활은 복음을 부인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고(마 6:1)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였다(빌 1:27).

4.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인도하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롬 10:17). 복음 진리가 바르게 능력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야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최선의 현장이다.

교회에 정기적, 규칙적으로 출석하고 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일예배, 교회학교 등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특별히 초신자들을 위해 마련된 전도부흥회는 단기간에 복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인 기회이다.

• 함께 생각합시다.

1.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어떤 방도가 좋겠는가?
2. 복음에 합당한 삶은 왜 중요한가?
3. 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 들을 기회와 시간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는지 실습해보라

• 공동기도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문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도구되게 하소서.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 성도로서 진실한 삶을 사는 모범을 보이면서 복음이 선포되는 복된 현장으로 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